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EMINARREPORT

08. 10
–
08. 15

–

2015

Yanji
Yongjung
Hunchun
Tumen
Mt. Baekdu

–

CHINA

Korean
&
Japanese
Anglican Youth

–

TOGETHER

2015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日韓聖公会 青年セミナー

“역사의 현장에서 화해와 나눔을!
歴史の現場で和解と分かち合いを…”

2015. 08. 10 - 15
延吉 / 白頭山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가 주최하고 TOPIK이 후원합니다.
日本聖公会と大韓聖公会が主催しTOPIKが後援します。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BOOKCONTENTS

4 Members

6 Time Table

7 Route

10 Lecture

17 Impressions

47 Our Prayer

53 Review

57 Photo Album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EMINARMEMBERS

2015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 参加者名簿(韓国側)

이름 名前	생년월일 生年月日	소속 所属
강화서 姜和瑞 Kang HwaSeo	1996.08.11	서울교구 성북나눔의집 ソンブク分かち合いの家
윤대엽 尹大燁 Yun DaeYeop	1985.09.07	서울교구 간석교회 カンソク教会
김민주 金珉柱 Kim MinJoo	1995.02.15	대전교구 온양교회 オニャン教会
이현동 李賢銅 Lee HyunDong	1972.04.25	대전교구 병천교회 ビョンチョン教会
노형호 盧亨昊 Roh HyoungHo	1973.06.20	성공회 교무원 聖公会教務院
설윤정 薛倫汀 Seol YunJeong	1982.07.28	서울교구 길찾는교회 道探教会
우에하라 세이와 Uehara Seiwa	1988.03.15	서울교구 영등포교회 ヨンドンポ教会
유시경 柳時京 Yoo Sikyung	1963.02.11	성공회 교무원 聖公会教務院
양승우 梁承友 Yang SeungWoo	1977.06.04	서울교구 교육훈련국 ソウル教区教育訓練部
차강민 Cha KangMin	1995.05.24	서울교구 서울주교좌 ソウル主教座
문지현 文智炫 Moon Jihyun	1993.01.09	서울교구 도봉교회 ドボン教会
김택희 金澤姬 Kim TackHee	1952.05.10	TOPIK ブピョン教会
윤문희 尹文姬 Yun MoonHi	1995.03.11	대전교구 둔포교회 ドゥンポ教会
황윤하 黃潤夏 Hwang Younha	1986.02.01	서울교구 서울주교좌 ソウル主教座

2015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참가자명단(일본측)

이름 名前	생년월일 生年月日	소속 所属
千松　清美 Senmatsu Kiyomi	1967.5.6	大阪教区 오사카교구
松村　希 Matsumura Nozomi	1988.3.5	中部教区 중부교구
松山　健作 Matsuyama Kensaku	1985.12.10	京都教区 교토교구
香山　由希 Kayama Yuki	1991.10.7	大阪教区 오사카교구
小林　美奈 Kobayashi Mina	1992.11.3	横浜教区 요코하마교구
矢萩　新一 Yahagi Shinichi	1975.6.25	京都教区 교토교구
藤井　和人 Fujii Kazuhito	1984.6.7	京都教区 교토교구
大隅　彩恵子 Oosumi Saeko	1986.11.13	京都教区 교토교구
越山　哲也 Koshiyama Tetsuya	1976.7.5	東北教区 동북교구
篠田　晴哉 Shinoda Haruya	1991.2.21	京都教区 교토교구
丁　胤植 Jung Yoonsic	1971.2.8	中部教区 중부교구
久保田　愛美 Kubota Manami	1995.3.20	京都教区 교토교구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EMINARTIMETABLE

Time		10 Mon	11 Tue	12 Wed	13 Thu	14 Fri	15 Sat
	06:00		기상 & 준비 起床＆準備	기상 & 준비 起床＆準備	기상 & 준비 起床＆準備	기상 & 준비 起床＆準備	기상 & 준비 起床＆準備
06:00	07:00						
07:00	08:00		아침기도 朝の祈り	기도 및 식사 朝の祈り・朝食	아침기도 朝の祈り	아침기도 朝の祈り	조식 후 출발 朝食後出発
08:00	09:00		아침식사 朝食	백두산 출발 白頭山出発	아침식사 朝食	아침식사 朝食	
09:00	10:00		훈춘 출발 琿春出発		도문 · 용정 圖們・龙井	연길 시내 투어 延吉市内 ツアー	탑승수속 搭乗手続き
10:00	11:00						
11:00	12:00						
12:00	01:00		점심식사 昼食	점심식사 昼食	점심식사 昼食		
01:00	02:00		방천 防川	백두산 등정 白頭山	도문 · 용정 圖們・龙井		
02:00	03:00						
03:00	04:00					Talk Time	작별의 시간 また会おう♪
04:00	05:00					발제 3 発題３	
05:00	06:00	두레마을 이동 ドゥレ村移動	숙소도착 宿舍到着		숙소도착 宿舍到着		
06:00	07:00		저녁식사 夕食	저녁식사 夕食	저녁식사 夕食	폐회예배 宿舍移動	
07:00	08:00	저녁식사 夕食	발제 1 発題１	숙소로 이동 宿舍移動	발제2 発題２	페어웰 파티 フェアウェルパーティー	
08:00	09:00	O.T.					
09:00	10:00	개회예배 開会礼拝	밤기도 夜の祈り	밤기도 夜の祈り	시낭송&기도 詩朗誦＆祈り		
10:00		취침 및 자유시간 就寝・自由	취침 및 자유시간 就寝・自由	취침 및 자유시간 就寝・自由	취침 및 자유시간 就寝・自由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EMINARROUTE

1. 연길 延吉

연길 시(병음: Yánjí)는 중국 동북지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현급시이자 중심지이다. 인구는 52만명(2008년)으로 조선인이 58.4%, 한족이 39.4%이다. 시내 곳곳의 상점들은 한국어 간판들이 즐비하고, 한국어로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다.

백두산 북쪽의 산간 분지인 연길 분지에 위치해 있다. 서쪽을 제외한 남쪽과 동쪽, 북쪽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돈화, 북동쪽은 왕청, 동쪽은 도문, 남쪽에서 남서쪽은 용정, 서쪽은 안도와 접해 있다.

延吉市（えんきつし）は、中華人民共和国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に位置する県級市。自治州政府の所在地である。朝鮮族が人口の過半を占め、韓国との合

弁企業も多い。町はハングルの看板が溢れ、朝鮮語放送のテレビ局もある。朝鮮語での街の読み方は연길（ヨンギル）。

長白山（朝鮮語では白頭山ともいう）は北麓の山間盆地に位置する。南北東は山に囲まれ、西に開けている。延辺朝鮮族自治州の中心部に位置し、北は敦化市、北東は汪清県、東は図們市、南から南西は竜井市、西は安図県と接する。

2. 백두산 白頭山

백두산(白頭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강도 삼지연군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린 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걸쳐있는 화산이다. 높이는 2,7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머리가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다가 흰색의 부석(浮石)들이 얹혀져 있어서 '흰머리산'이라는 뜻으로 '백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智異山)까지 이르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 내렸다 하여 예로부터 한민족과 만주족에게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었고, 환웅이 신시(神市)를 열고 단군이 태어난 성지라 여겨 신성시되었다. 또한, 백두산은 남만주 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은 장백 산맥의 주봉이기도 하다.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天池)는 화산호로, 쑹화 강(松花江)의 발원지이다. 천지의 수면은 해발 2,257m , 면적은 9.165㎢ , 둘레 14.4km , 평균 깊이 213.43m , 최대 수심은 384m이며, 수량(水量)은 19억5,500만m^3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가장 깊은 호수이다. 흑수(黑水)라는 별칭이 있다.

白頭山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両江道、三池淵郡と中華人民共和国、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にまたがる火山。高さは2,750mで、韓半島で最も高い。山頭が1年の間の8ヶ月が雪で覆われている上に白色の浮石が浮かんでおり「白髪山」という意から「白頭山」と呼ぶこととなった。白頭山から智異山まで達する白頭大幹は韓半島の基本の山脈であり、すべての山々がここからのびおりたとして昔から韓民族と満洲族にとって神聖な山として崇拝され、ファンウン（韓国の建国神話中の人物）が神市を開いて檀君が生まれた聖地として神聖視された。また、白頭山は南満洲北東から西南西方向まで伸びた長白山脈の主峰でもある。

白頭山頂上にある天池は火山湖で、松花江の発源地である。天地の水面は海抜2,257m、面積は9.165平方km、周囲14.4km、平均の深さ213.43m、最大水深は384mであり、水量は19億5,500万㎥で韓半島だけでなく中華人民共和国でも最も深い湖である。黒水という別称がある。

3. 훈춘 琿春

훈춘(琿春, 병음: Húnchūn)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동부에 위치한 현급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국경 개방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시의 인구는 25만여 명이고, 이 중 조선족이 약 45%를 차지한다.

琿春市（こんしゅん-し）は中国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東端に位置する県級市。国境開放都市に指定されている。人口の45%以上を朝鮮族が占める。

4. 용정 龙井

용정(龙井/龍井, 병음: Lóngjǐng, ·문화어: 룡정, 표준어: 용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도시이다. 면적은 2591km², 인구는 26만여 명이고, 전체 인구 중 조선족 비율이 67%에 이른다. 시인 윤동주의 고향으로 그의 무덤이 있다.

龙井は中華人民共和国、吉林、延辺朝鮮族自治州にある都市だ。 面積は2591㎢、人口は26万人余りで、全体人口のうち朝鮮族比率が67%に達する。詩人尹東柱の故郷であり、彼の墓がある。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PECIALLECTURE

「痛みの歴史」

発題①要約

アンデレ　**松山 健作**

2014年済州島で開催された日韓聖公会宣教協働30周年記念大会の共同声明において、両聖公会青年は「東アジアの苦難と痛みを共にする青年活動に取り組む」ことを宣言している。宣言後、はじめて開催された日韓聖公会セミナーは、中国東北地方の延辺を中心に行われた。私は、宣言文の「苦痛や痛み」という言葉に注目し、大きく分けて３つのテーマ「抗日独立闘争、満州伝道、朝鮮戦争」に要点を絞って発題を試みた。

第一に、抗日独立闘争では、「間島」および「沿海州」において繰り広げられた抗日独立闘争について言及し、日本が政策的に土地、文化、言葉などの隣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収奪した植民地の歴史を今日的にいかに考えるかについて問いかけた。また安重根という抗日独立運動家に注目し、彼の獄中手記を紹介し、また伊藤博文殺害に関する日韓聖公会の言説について取り扱った。その特徴について一言するなら、日本聖公会においては、キリスト者としての安重根の信仰を否定し、また朝鮮聖公会においては伊藤博文の死に哀悼を示し、伊藤の政策を支持する姿勢を示した親日的側面があったことを紹介した。

第二に、聖公会の満州伝道について取り扱った。これは直接私たちが訪れた延辺地域に関する考察ではないが、中国東北地方という領域を聖公会との関係で見る時に重要な事例であろう。具体的には、日本が朝鮮半島に進出し支配するなかで大陸に北上する日本人たちは、1905年日露戦争以後に中国東北地方にも広がっていった。この進出は、第一の抗日独立闘争を激化する要因にもなったと考えられるが、そのような日本人の進出は土地の収奪と同時に教会形成という事柄にも

関連していたことに私たちは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ここでの教会とは、進出者の教会であり、侵略者の教会であるとも言うことができる。つまり、この教会は「在満日本人」の教会を差している。日露戦争以後に満州鉄道沿線に増加し始めた日本人のなかに聖公会の信徒が存在し、1913年から朝鮮半島にて伝道活動に従事していた伝道師岡墻秀造が渡満することで大連に教会が形成され、のちに長春（新京）、奉天、ハルビンにまで教会が形成された。またそのなかで、在満日本人信徒たちが満州に散在した朝鮮人をいかなる眼差しをもって視ていたかについても取り扱った。満州には、中国人、満州人、ロシア人、朝鮮人、日本人、ユダヤ人と多様な民族が混在しながら居住していたが、主に日本人たちは朝鮮半島内と同様に朝鮮人を差別しながら朝鮮人に対する偏見と優越感を持って接しており、独立思想を抱く朝鮮人キリスト者に対して「不テイ鮮人」という用語でもって表現し、「十字架の陰に隠れて」独立を叫ぶ「危険人種」という視線で朝鮮人を見ており、同じキリスト教の信仰をともにすることに強い拒絶感を示していた。また、その「在満日本人」教会の構成員についても言及した。構成員は、満州鉄道や三井物産などの財閥系の人々が多く含まれており、結果的に満州の植民地政策の中枢にいた人々が教会の構成員である可能性についても言及した。

第三に、朝鮮戦争とキリスト教の関係性について言及した。朝鮮戦争を取り扱うことは、日本の植民地からいかに朝鮮半島が分断されていったかについて知る作業でもある。戦争が起こった際の共通点なのだろうが、朝鮮戦争において、日本帝国のファシズム期に日本のキリスト者が戦争賛美していったように、韓国あるいは北朝鮮のキリスト者が戦争賛美していった事実を李承晩大統領や韓景職牧師の事例を取り上げながら紹介した。同時に強調したことは、近現代史において朝鮮戦争という戦争が、戦争史上もっとも悲惨な戦争である理由についても指摘した。その理由は、朝鮮半島という小さな領域において、同族間がイデオロギー対立によって現代兵器を用いて殺戮を繰り返した戦争であり、当時人口の５分の１の人口が失われたと推測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死者数は統計に差異あり）。このような悲惨な戦争が隣国で引き起こった際に、日本は「朝鮮特需」と言いながら戦争景気のなかで景気向上したわけであるが、そもそも朝鮮半島の分断の原因を誘引したのは、36年の植民地責任というものが根底にあるという視点が抜け落ち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問いかけ、今日においては日本人が朝鮮半島の統一に関心を寄せ、統一に向けた歩みをともにする必要性を強調した。

また青年の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への期待として、近現代の東アジアにおける歴史に自らがいかに向き合うことができるのか。キリスト者として「罪責」をいか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問いかけ、同時に当時の植民地や戦争に追従し、賛美したキリスト者の姿を現代に生きる日韓の青年がいかに捉え、今日を歩むかについて模索する必要性について問いかけた。

（京都教区　聖職候補生）

「아픔의 역사」

발제 1 요약

마츠야마 켄사쿠 안드레

2014년 제주도에서 개최 된 한일 성공회 선교 협력 30 주년 기념 대회의 공동 성명에서 양국 성공회 청년은 '동아시아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는 청년 활동에 임한다'고 선언했다. 선언 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는 중국 동북 지방의 연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선언문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 「항일 독립투쟁、만주전도、한국 전쟁」이라는 초점을 맞춰 발제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로 항일 독립 투쟁은 '간도'(間島)와 '연해주'(沿海州)에서 펼쳐진 항일 독립투쟁에 대해 논하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토지, 문화, 언어 등 이웃 나라의 정체성을 수탈한 식민지 역사를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안중근이라는 항일 독립 운동가를 주목하며 그의 옥중 수기를 소개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살해에 대한 양국 성공회가 주고 받은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그 특징으로 말하자면 일본 성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중근이 갖고 있던 신앙을 부정하였고, 조선 성공회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정책에 지지를 표하는 등 친일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는 성공회의 만주 전도에 대해 다뤘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방문했던 연변 지역에 대한 고찰은 아니지만, 중국 동북 지방이라는 영역과 과거 성공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여 지배를 시작한 가운데, 대륙에 북상한 일본인들은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중국 동북 지방으로도 퍼져 나갔다. 이것이 항일 독립 투쟁을 강화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인의 한반도 진출은 토지 수탈과 동시에 교회 형성에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진출자의 교회이며, 동시에 침략자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재만 일본인(在満日本人)'의 교회라는

것이다. 러일 전쟁 이후에 만주 철도 연선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일본인 중에는 성공회 신자도 존재해 1913년부터 한반도에서 선교 사업에 종사한 전도사 오카가키 히데조(岡墻秀造)가 만주로 넘어오게 되며 대련에 교회가 형성되었다. 나중에 장춘(신교), 봉천, 하얼빈까지 교회가 형성되었다. 또 그 속에서 재만 일본인 신도들이 만주 이곳 저곳에 흩어져있던 조선인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당시 만주에는 중국인, 만주인, 러시아인, 조선인, 일본인,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일본인들은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을 차별하며,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보였고, 독립 사상을 품은 조선인 신자에게는 '불정선인(不テイ鮮人)'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십자가 뒤에 숨어 독립을 외치는 '위험한 인종'이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신앙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또 '재만 일본인'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주 철도나 미쓰이 물산(三井物産) 등 재벌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 만주 식민지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교회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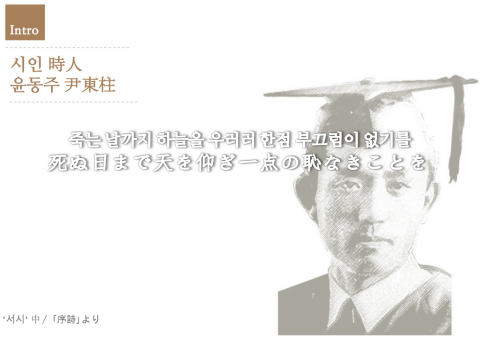
세 번째, 한국 전쟁과 기독교의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 전쟁을 다룬다는 것은 일본 식민지 지배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됐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전쟁이 일어 났을 때의 공통점이라 하면 한국 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파시즘시기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찬양했듯이 한국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과 한경직 목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소개했다. 동시에 근현대사에 있어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이 역사 상 가장 참혹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반도라는 작은 영역에서 같은 민족이 정체성 대립에 의해 현대 무기를 사용하여 살육을 반복한 전쟁이며, 당시 인구의 5 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사망자 통계에 차이 있음).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이웃 나라에 일어났을 때 일본은 전쟁 속에 경기가 살아난 것을 '조선특수'라 표현하기도 했는데, 애당초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것은 36년 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빠져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으며 오늘날의 일본인이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향한 행보를 함께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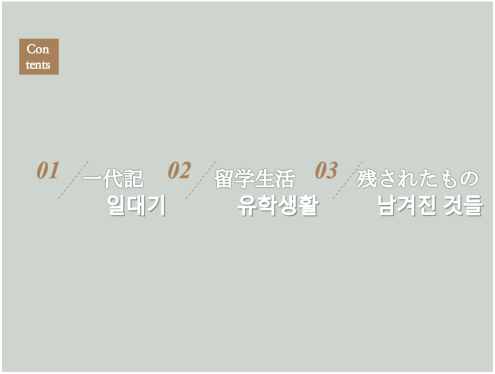
또한 청년 그룹 토의에 대한 기대로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지, 기독교인으로서 '죄책'을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해 물음과 동시에, 당시 식민지나 전쟁을 추종하고 찬양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오늘날의 한일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드리고, 걸어나가야 할 지 모색 할 필요성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교토 교구 성직 후보생)

"윤동주 / 尹 東柱" (ユン ドンジュ)

ラファエラ　**ムン ジヒョン** (Moon Jihyun)	문 지현 라파엘라
愛恩　**キム ミンジュ** (Kim Minjoo)	김 민주 애은
ヨシュア　**上原 成和**	우에하라 세이와 여호수아





02 윤동주의 유학생활 尹東柱の留学生活

릿쿄대학
- 군사훈련 시행
- 단발령 실시
- 성공회 신부와의 만남

立教大学
- 軍事訓練施行
- 断髪領実施
- 聖公会の司祭との出会い

02 윤동주의 유학생활 尹東柱の留学生活

1941作 「서시」「序詩」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무엇이나 악보까지도 사서 몽땅!
韓国語の印刷物が今後なくなるはずだから何でも楽譜さえ買って集めなさい。”

02 윤동주의 유학생활 尹東柱の留学生活

도시샤대학
- 전시체제로 인한 감시↓
- 정지용이 유학한 학교
- 송몽규와의 접촉이 용이

同志社大学
- 戦時体制による監視↓
- 鄭芝溶(ジョン・ジヨン)が留学した学校
- 宋夢奎(ソン・モンギュ)との接触が便利

02 윤동주의 유학생활 尹東柱の留学生活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 길에 오르던 **윤동주**
夏休みを迎え、故郷の道に登ってきた **ユン・ドンジュ**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체포 당하다.
再び故郷に帰ることは出来ず、逮捕される。

그의 죄명은 **‘치안 유안법 위배’**
彼の罪名は「治安維持法違背」

02 윤동주의 유학생활 尹東柱の留学生活

1年7ヶ月間の労働
1년 7개월 간의 노동
しかし
그러나

決定的にユン・ドンジュを死なせたのは
결정적으로 윤동주를 죽게 한 것은 **‘의문의 주사’** 「謎の注射」

02 윤동주의 유학생활 尹東柱の留学生活

8.15 광복을 반 년 앞둔 1945년 2월 16일
8.15の解放を半年後に控えた1945年2月16日

외마디 긴 비명을 남기고 숨을 거두다.
一声の長い悲鳴を残して息を引き取る。

03 남겨진 것들 残されたもの

1948年遺稿31編を集め、詩集「空と風と星と詩」出版
1948년 유고 31편을 모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간행

03 남겨진 것들 残されたもの

“追慕に止まらず、植民地支配の歴史を反省し、記憶しよう！
추모를 넘어 식민지 지배 역사를 반성하고, 기억하자!”

03 남겨진 것들
残されたもの

도시샤대학 윤동주 서거 70주기 행사
同志社大学尹東柱70周忌行事

도시샤대학 윤동주 시비
同志社大学尹東柱詩碑

릿교대학 윤동주 70주기 추모예배
立教大学尹東柱記念礼拝

03 남겨진 것들
残されたもの

2차 세계대전, 전운이 감도는 일본 내에서
第二次世界大戦の戦雲が漂う日本で

모국어로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직시한 **식민지 시인 윤동주**
ハングルで詩を書きながら民族の痛みを直視した
植民地詩人尹東柱

03 남겨진 것들
残されたもの

고향집

헌 짚신짝 끄을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땍볕에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故郷の家

古い草履を引きずり
私はここになぜ来たのか
豆満江を渡って
寂しいこの地に
南の空あの下に
暖かい私の故郷
私のお母さんがいる所
なつかしき故郷の家

1936.1.6

03 남겨진 것들
残されたもの

새로운 길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新しい道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昨日も行き、今日も行く
わたしの道、新しい道

タンポポが咲き、かささぎが飛び
娘が通り、風が起こり

わたしの道はいつも新しい道
今日も.....明日も.....

峠を越えて村へ
川をわたって森へ

1938.5.10

T H A N K Y O U !

1 5 . 0 8 . 1 4
<PRESENTATION>
:-) K I M M I N J U
:^> M O O N J I H Y U N
B-) U E H A R A S E I W A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EMINARIMPRESSION

* in random order

ルシア　**松村 希**

【本文】

セミナーを通して心に残っている言葉はたくさんありますが、その中の１つが、一松亭での千松先生のお祈りにあった「神さま、何を祈ったらいいのかわかりません」という言葉です。この言葉で、目から鱗が落ちました。「あ、“わかりません”と言っていいんだ」と。

正直に言うと、今回のセミナーは毎日“わからない”ことの連続でした。自分の知識や感性を総動員しても想像しきれない思いを、たくさん見聞きしたのです。例えば、国境でDPRKを目の前にした時の韓国側参加者の「なんか変な感じ」という気持ち、レストランでDPRKの女性たちと会った後の「悲しい」という感想、ユンドンジュの母校や生家で感じた民族教育に対する当時の人々の熱意。他にももっとありました。

こうしたたくさんの“わからない”を自覚して、私は「多様性を尊重」とか、「互いの違いを知る」とかそういった言葉の意味を、今回のセミナーで初めて理解した気がします。それぞれ文化や背景に違いがあるし、本当に“わか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当然。それでも相手を知ろうとし、いっしょに歩む。そしてどんな背景を持っていてもキリスト者である私たちが立ち返るのは、神さまのいるところで、ひとつで、同じ。そんなシンプルなことが、参加者みんなとの分かち合いや交流を通して、ストンと心に落ちたセミナーでした。

【番外編】

セミナー最終日の15日。中国からの帰り道、日本側の参加者が経由した仁川空港では、先に飛行機が着いた韓国の青年数名が私たちの到着を待っていてくれて、乗継便までの少しの時間を空港内で一緒に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その日は韓国においては「光復70年」の大切な日であり、空港内にも写真撮影のブースが設けられたり、バナーが飾られたりしていました。それらを見て、“今日は特に日本に対していろいろな気持ちを持っている人がいるんだろうな、私たちの日本語を聞いて不快になる人もいるのかな”そんな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

でも。私たちにはこれまでの青年活動で得た関係があります。日本語と韓国語ごちゃまぜで話して笑い、別れ際は何度も手を振ってちょっと泣きながら別れを惜しむような関係です。国同士が難しい状況にある中で、これってすごいことだな、と私は日本への飛行機の中で感動していました。こういう一つ一つの関係の積み重ねが、これからの歴史になっていくといいなぁ、と思います。

마츠무라 노조미 루시아

【본문】

세미나를 통해 정말 많은 말들이 제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송정에서 드린 센마츠 신부님의 기도입니다. '하느님, 무엇을 기도 드려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히 이번 세미나는 매일 '모르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감성을 총동원해도 상상조차 힘든 것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경에서 DPRK(북한)을 눈 앞에 두고 '느낌이 묘하다'고 말하는 한국 참가자들의 기분, 식당에서 일하는 DPRK의 여성들과 만난 뒤 느낀 '슬픈' 감정, 윤동주의 모교와 생가에서 본 당시 활동가들의 민족 교육에 대한 열정 등 많은 순간이 떠오릅니다.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수없이 '몰랐던 것'을 깨달은 후, 이제는 '다양성의 존중' 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배경에는 차이가 있고, 서로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을 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들이 되돌아 갈 곳은 하느님이 계신 곳 하나라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함께한 모두와 추억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진리가 마음 속에 '쿵' 하고 떨어진 시간 이었습니다.

【번외편】

세미나 마지막 날이었던 15일. 일본 참가자들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먼저 도착한 한국 청년들 일부가 인천공항에서 경유하는 동안 탑승 전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줬습니다.

그 날은 한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날로, 공항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 부스도 있고, 태극기도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식들을 보며 '오늘은 특히 일본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혹시 우리들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청년 교류 활동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죽박죽 섞인 말로 웃음 짓고, 헤어질 땐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몇 번이나 손을 흔들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라며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감동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의 관계가 쌓여,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アンデレ **松山 健作**

「延辺の地を歩いて」

東アジアの近代史に関心を寄せる一人として、今回訪れた延辺の地、あるいはもう少し大きな範囲として中国東北地方（旧満州）の地は、私にとって憧れの地でありました。それは歴史的に抗日独立運動が展開された地であると同時に、かつて日本人たちが満州に移住していく過程をも辿ることのできる、つまり「満州国」の歴史を知ることができるゆえです。

しかし、今回この地を訪問して気づいたことは、私たちがこの地について忘れ去っている事実が多すぎるのではないか、すなわち「知らないことが多すぎ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延辺周辺の人々が生きてきた歴史を知ることをはじめ、今日の状況、つまり中国共産政権下において、いかなる状況のなかで朝鮮族の人々が生きているかという事柄まで知る必要があったのではない

かと感じています。バスガイドのオンニは、「ウリミンジョク（私たちの民族）」というような表現を頻繁に用いていながら延辺の状況を説明していました。その言葉が包括するのは、現在の韓国の人びと、北朝鮮の人びと、中国の朝鮮族、あるいは中央アジアのカレイスキー（高麗人）、在日コリアンなどまで含まれるのでしょうが、それらの人びとが今日「ウリミンジョク」という言葉で一言で括ることができるにしても、今日においては全く異なる状況、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ち、ときには民族間のなかで歴史的あるいは今日的に葛藤を抱きながら、現在に至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改めて実感したように思います。

ですから「ウリミンジョク」という言葉、そのものは理解できるのですが、日本の植民地からはじまり散りぢりになった朝鮮半島の人びとが、さまざまな状況のなかで歩み生きてきていることを日本人として、きっちりと捉えること、またそれらの人々と共に歩めるように歴史的な事柄から今日的な「痛み」までを理解する働きも今後必要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感じています。いずれにせよ、今回のセミナーによって延辺を訪れる機会が与えられ、また韓国の友人たちと共にその地を踏むことができたことを非常に感謝しています。また、準備に携わった大韓聖公会のスタッフのみなさん、青年のみなさんにもこの場を借りて感謝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カムサハムニダ！

마츠야마 켄사쿠 안드레

「연변 땅을 걸으며」

동아시아 근대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에 방문한 연변 땅,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중국 동북 지방(옛 만주)은 제가 늘 동경하던 곳 중 하나입니다. 항일 독립 운동이 전개된 역사적인 땅이자, 동시에 일본인들이 만주로 이주했던 '만주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 가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즉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짚어보면서, 오늘 날 중국 공산당 정권 아래 조선족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가이드였던 '언니'는 연변의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 민족'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 단어가 포함하는 것은 오늘날의 남북한 사람, 중국의 조선족, 혹은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이나 재일 교포까지겠지요. 하지만 '우리 민족'이란 단어 하나로 모두를 칭할 수 있다 해도, 사실은 전혀 다른 상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갈등의 역사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아픔을 나누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연변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를 도와준 한국 성공회의 모든 스텝, 청년들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篠田 晴哉

【報告】

今回のセミナーを通じて、自分なりに感じたことについて2点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

1点目は「赦し」についてです。セミナーの中で、日本人としてどのように朝鮮半島の独立運動と向き合えば良いのか、何に対して赦しを考えるのか、強く悩みました。6日間という短い期間では、そこに答えを出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原因としては、自分の知識不足、対話不足、考えてきた時間の短さ等色々あると思います。今回のセミナーを通じて、「赦し」という課題に気付く機会を与えられましたので、日韓の問題について、何に対する「赦し」なのか、自分なりに時間をかけて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2点目は「繋がりへの感謝」についてです。今回のセミナーを通じて、日韓両国の多くの方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は日常生活では容易ではない出会いであり、今後の人生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出会いであったと思います。今回出会った方と共に平和について考え、少し過酷な環境で生活することで、繋がりをつく

ることができたと感じています。今後もこの繋がりを絶やさず、深く広く耕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시노다 하루야

【보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독립 운동과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무엇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식과 대화 부족, 깊이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용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한일 문제에 있어 '용서'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의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만남입니다. 함께 평화를 고민하고, 조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고생했기에 이러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연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의 우정을 깊고 넓게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大隅 彩子

私は、今回の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て、本当に多くのことに気付かされました。

私にとって、中国の東北地方はとても行きたい場所の一つで、一度も行ったことのない地域でした。しかし、今回このような機会が与えられ、また、日中韓の歴史上重要な場所に韓国の青年たちと共に行くことによって、多くの刺激を受けると思ったのが、今回の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ようと思ったきっかけでした。

まず、ロシアと北朝鮮を一望できる琿春市や図們江越しに北朝鮮を望むできる図們市に訪れ、ただただ、虚しさを感じました。私は、国境を初めて目にしましたが、空の鳥たちは自由に行き来していましたし、自然の中には国境という線は見えませんでした。それなのに、人は神様が作られた世界に国境を引き、それを奪い合っています。さらに、北朝鮮側の建物や自然が本当に廃れていました。同じ地球にあるのに、川を一本挟んだだけで、こんなにも景色が変わってしまうことに、ひたすら驚いてしまいました。

そして、旧満州国の遺跡が残る場所に行き、日本が戦時中にしたことが文字として残されているのを見ました。その時、私は本当に無知であったことに気付かされました。教科書の数行しか載っていない内容がすべてだと思い込んでいましたが、中国では違う捉え方をしていました。私自身、何も知らないのに、平和は語れないと感じました。実際に起こったことは起こったこととして知り、その上で、どのような行動ができるかを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ました。

さらに、今回の尹東柱の記念館と生家に赴き、改めて歴史認識の違いを感じました。私は、正直名前すら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が、韓国では必ず習う人物の一人だと聞きました。日本で最期を迎えた人物なのに、日本では全く出てきません。その国によって、視点が変わり、取り上げる内容が異なります。その違いの中で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か、非常に考えさせられました。歴史は変えることのできない事実です。その事実としっかり向き合うことが私たち青年にも必要だと感じました。

今回、戦後七十年を迎える年に、旧満州国であり、日中戦争の地である中国東北部に行き、私には未だに拭い切れていないモヤモヤが残っています。私たち青年が、もっと日本の侵略の歴史について学ぶ必要があり、そして、日本人として過去ときちんと向き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ました。しっかりと向き合い、それから、何ができるかを考え、二度と戦争という悲惨な歴史を繰り返さないよう、何か行動をおこす。私たちのグループが閉会礼拝で歌った聖歌４１７番「あなたの平和の器にしてください」の通り、神様の愛を伝える者になれるよう、平和を求めていきたいと感じました。

오오스미 사에코

이번 한일 청년 세미나에 참여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중국의 동북 지방은 무척이나 가보고 싶은, 그러나 한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한중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곳에 한국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큰 자극을 기대하며 참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와 북한을 볼 수 있는 훈춘시와 두만강 너머 북한이 보이는 도문시에 방문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본 국경에서는 하늘의 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고, 자연에는 국경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선을 긋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건물과 자연은 너무 황폐했습니다. 같은 지구에 있음에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환경이 다른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만주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이동해,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지른 일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몇 줄이 전부라 믿어왔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역사를 받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이 감히 평화를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배우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윤동주 기념관과 생가를 걸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 인식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작가의 이름을 들어본 적 조차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이 일본에서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따라 관점이 바뀌고 다루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옛 만주국이면서 중일전쟁의 배경이 된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아직도 개운하게 씻어낼 수 없는 답답한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일본인으로서 과거와 솔직하게 대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거짓없이 마주하고 거기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해, 두 번 다시는 전쟁이라는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 그룹이 폐회 예배에서 부른 성가 417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주소서〉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평화를 구하고 싶습니다.

クララ　**久保田 愛美**

私は今回のセミナーで参加は３回目となります。今回のセミナーは、前回までのテーマとは異なるため新しい学びができる場でした。

今回私は、自分と葛藤する日々が続きました。なぜなら、日本人として自分があまりにも無知だったからです。今まで、日本が朝鮮半島でどの様なことをしてきたのか、どの様な歴史が日韓の間であったのかも知らずに、韓国の青年と関わり、「韓国が好きだ」と言ってきた自分が恥ずかしく思えました。そして、自分の国が過去にしてきた過ちを知り、ショックを受けたのも事実です。そのためセミナー中、日本人としてもっと歴史と向き合い、学び続け、考え続ける必要があることはわかっても、どの様な想いでこの地にいたらいいのか、韓国の青年とどの様に関われればよいのか、一緒に笑っていてもよいのか、わか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の時間にこの気持ちを打ち明けると、韓国側から「その様な気持ちで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が返ってきました。その時私は驚いたのと同時に、心が救われました。そして、反省の気持ちを持ちながら、もっと過去の歴史を知ろうと決心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戦後７０年の今年、日本では二度と戦争を繰り返さないため、自国の被害の部分が多く報道されています。それも平和のためには大切なことですが、私たちが一加害者であることも知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セミナー後、日本が加害者である事の報道が少ないことに気がついた時、恐怖を感じました。

多くのことを共に学んだセミナーの最終日、両国互いに思うことはそれぞれあったとは思います。それでも、両国の青年は涙を流したり、ハグをしながら、別れを惜しんでいたのは、過去の歴史も受け入れたうえで、日韓の青年で平和に向けて一緒に歩んで行こうとする姿だ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私は思いました。私たち青年は、これからも共に学び、考え、一緒に歩む必要があると、今年も強く思えたセミナーでした。

쿠보타 마나미 클라라

세미나 참가는 올해로 3번째 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주제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제 자신과 갈등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양국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이 좋아요'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 일본인으로서 더 역사와 마주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한국의 청년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을지, 함께 웃어도 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그룹 토의시간에 털어 놓자 한국 참가자로부터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놀람과 동시에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더 과거의 역사를 배우자고 결심했습니다.

전후 70 년인 올해, 일본에서는 두 번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전쟁으로 피해 입은 일본인들의 상처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가해자라는 것도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이후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적게 보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함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세미나의 마지막 날, 양국의 청년들이 느낀 감정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눈물과 함께 포옹을 하며 이별을 아쉬워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으로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올해 세미나에서도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藤井 和人

今、日韓青年セミナーを振り返って、私の心の中に深く残っていることが２つあります。

一つ目は、東アジアの国境線に私たちが自らの足で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こでは、中国、北朝鮮、ロシアの国境線である豆満江を見渡す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時、越山先生が、「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向こう岸に渡ろう』と言われたが（マルコ4:35）、今の私たちは、向こう岸に渡ることができない」と、おっしゃったことがとても印象的でした。

鳥たちは自由に国境を行き来します。しかし、脱北される人々は、必死の思いでこの豆満江を渡るのでしょう。なぜこのような国境ができるのか。その疑問の追求から見えてくるイデオロギーや民族の差異は、キリスト教精神の視点から見れば、それは決して真理だとは言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そのことが私の心の中に深く突き刺さりました。

二つ目は、北朝鮮食堂に行ったことです。国から派遣されて、国のために従事する女性たちが、私の目の前にいるのに、とても遠い存在のように思えました。もしこの従事を捨て、脱北すれば、家族は処刑されます。自由か、家族か。この選択は私たちの想像を絶することなのでしょう。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目の前にいる女性たちひとりひとりは、どのような思いで、この従事を遂行しているのか、歯がゆい疑問を感じながら、あまり進まない食事を無我夢中で喉に通しました。

후지이 카즈히토

이번 한일 청년 세미나를 돌아보며 제 마음 속 깊이 남아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동아시아의 국경선에 두 발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선인 두만강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테츠야 신부님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마르코 4:35)'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은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듭니다.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이 두만강을 건넜겠지요. 왜 이러한 국경이 생긴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민족과 사상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 역시 기독교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고,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고민했던 것이 제 마음 속 깊이 박혀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북한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북한 정부에서 파견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너무나 먼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 일을 버리고 북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 가족들이 처형당합니다. 자유인가 가족인가. 이 선택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앞에 있는 여성 하나하나는 각자 어떤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을 의문에 붙이며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 식사를 억지로 목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フランチェスコ　**香山 由希**

「青年・和解・一致」

去年に続き、今年も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することが出来たことをとてもうれしく思います。今年の舞台は韓国でも日本でもないということで、私は去年以上のわくわくとドキドキを抱えながら中国へと旅立ちました。

今回、「分断と和解」というテーマで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中で、自分が今後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思った課題は、「日本の植民地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の歴史により深く関心を持つ」ということでした。延吉は中国の北部、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に位置する市ですが、土地が北朝鮮・ロシアと接している地域でもあります。バス移動の中、川のすぐ向こう側に広がる北朝鮮を眺める時間が多くありました。日本のテレビで報道される北朝鮮は自分の日常とは全く縁のない存在でしたが、この地域に住む人々にとっては北朝鮮は日常の一部であるということを実感し、彼らの日常もどこかで私たちの日常に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心に留めました。グループセッションでは、中国における朝鮮分断の歴史を中心に、詩人ユン・ドンジュの故郷を訪れたこと、龍井市での抗日独立運動家の拠点をめぐるフィールドワークで感じたそれぞれの思いを分かち合いましたが、韓国の青年と比べて如何に自分がこれらのことについて今まで関心を持っていなかったのかを痛感しました。これは日本からの参加者のほとんどに言える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期間中、常に温かく接してくれた韓国の友人達に心の底からありがとうと言いたいです。

純粋な青春の青い空へ　今、70年の歳月を背に立っている。

さあ、今平和のパンと杯を　ともに分かち合わせ、

主よ私たちの冷たい心を柔らかく溶かして下さい。

一つの心、一つの思い、一歩ずつ手を取り合って　峠を越え、神の国へ

카야마 유키 프란시스

「청년・화해・일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일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무대는 한국도, 일본도 아니어서, 저는 작년 이상으로 가슴이 설레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안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 세미나, 「분단과 화해」라는 테마로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중,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었던 과제는「일본의 식민지시대에 대한 동아시아 의 역사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길은 중국의 북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위치한 도시이지만, 그 땅은 북한, 러시아와 근접해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버스이동 중, 강 건너편에 펼쳐져 있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북한은 저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이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들의 일상도 어딘가 우리들의 일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Group sharing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의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중심으로, 시인 윤동주의 고향을 방문한 것, 용정시에서 항일독립운동가의 거점을 순회하는 Field work에서 느낀 각각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생각을 나누었지만 제 자신은 한국의 청년들에 비해 어딘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참가자의 대부분에게 적용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기간 중 항상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의 친구들에게 마음의 깊은 곳 으로부터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청춘의 푸른 하늘로　지금, 70年의 세월을 등지고 서있다.

자, 지금 평화의 빵과 잔을 함께 나누고,

주여 우리들의 차가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옵소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한 발씩 손을 맞잡고 고개를 넘어, 하느님의 나라로

小林 美奈

私は昨年に初めてこのセミナーに参加し、初めて韓国の友達ができ、素晴らしい出逢いと経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それをきっかけに韓国のことをもっと知りたいと思い、韓国に関する新聞記事や本を読む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までの自分は韓国によく目を向けていなかったことと、韓国と日本との歴史について自分はまだまだ知るべきことがたくさんあることに気づかされ、とても恥ずかしく思いましたが、気づくことができたことに今、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

今年のセミナーは、実際に歴史の地に立って、韓国の青年とともにお互いの国や中国の歴史を学び、平和について考えるものでした。歴史の現場で実際に見たり聞いたりしたことで、また新たに知ったことがたくさんあり、普段ではできない貴重な経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正直まだ自分の中で消化できていなくて、世界の和解と平和を築くために自分たちにはなにができるのかを、今も考え続けています。セミナー中の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で、「今回の学びを感情だけで終わらせるのではなく、信仰者としてどうしていくべきかを考えたい」という意見がありました。とても難しいです。まずは“祈ること”が大切ですが、他にも自分たちにできることはないか、これからも考えて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この、国を越えた聖公会の青年同士のすばらしい交流セミナーが、これからも絶えず続いていくことを願うばかりです。

코바야시 미나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 세미나에 참가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친구들이 생기고, 멋진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을 좀더 알고 싶어져서 한국에 관련된 신문기사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눈을 주지 않았다는 것과,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에 관해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의 세미나는 실제로 역사의 땅을 밟고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서로의 나라와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들음으로써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정말 많았고, 쉽게 할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중의 그룹토의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감정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신앙인으로써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앞으로도 항상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라를 뛰어넘은 성공회 청년들의 훌륭한 세미나가 앞으로도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을 바랄뿐입니다.

司祭　ステバノ　**越山 哲也**

「石の叫び」

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言っておくが、もしこの人たちが黙れば、石が叫び出す。」

（ルカによる福音書１９：３９）

この聖書の言葉は、主の弟子たちが声高らかに主を賛美することを快く思わないファリサイ派がイエスに向かって弟子たちを叱るように言った時に彼らに対して返答されたみ言葉です。そして、イエスは平和への道をわきまえていない人々を見て涙を流されたのです。

今回の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で私は尹東柱氏の事を知りました。正直に告白すると彼の事を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韓国や中国では国を代表する有名な人物であるのにも関わらず日本では尹東柱氏の事を知っている人はどれだけいるでしょうか。

同志社大学の礼拝堂の前に記念碑があることも知りませんでした。私が京都の神学校にいる時、何度か同志社大学の礼拝堂に行っているのですが記念碑の前は恥ずかしながら通過していました。今回のセミナーで彼の生家や母校を訪ねた際にたくさんの記念の石碑がありました。そこには彼の書いた詩や生涯について刻まれていました。その一つ一つに時間の許す限り足を止めて心を向けました。日本

の地で学ぶことを夢見ていた彼を待ち構えていたのは福岡刑務所での不条理な獄中死でした。無念だったでしょう。故郷に帰りたかったでしょう。しかし、時代の波に呑み込まれていく運命を予感しながらもキリストへの信仰を持ち続けた尹氏の残された詩が刻まれた石の叫びを私は決して忘れ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

코시야마 테츠야 스테파노 신부

「돌의 외침」

그러나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루가복음19:40)

이 성서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소리높이 주를 찬양하는 것을 좋지않게 생각하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제자들을 혼내듯이 말했을 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평화로 가는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 한일 성공회청년 세미나에서 저는 윤동주시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윤동주시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인물인 것에 관계없이 일본에서는 윤동주시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시샤 대학의 예배당 앞에 기념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토의 신학교에 있을 때, 몇 번인가 도시샤 대학의 예배당에 간 적이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기념비 앞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의 생가와 모교를 방문하였을 때 많은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썼던 시와 생애에 대하여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기념비에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다리를 멈추고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일본땅에서 배우는 것을 꿈꾸었던 그를 기다리고 있던것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원통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파도에 삼켜질 운명을 예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언제까지라도 기다린 윤동주시인의 남겨진 시가 새겨져 있는 돌의 외침을 저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三回目となるセミナー参加でした。今年も本当に良い学び、良い経験の場となりました。5泊6日のタイトなスケジュールの中、私が特に印象に残っているのは三国国境線と尹東柱の生家です。展望台から眺める「国境」を示す川や橋、（白い）建物を見ながら「どうして自由に渡れないのだろう」とか「国境って意外と小さいのだな」とか思いました。どうして分かれ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歴史の痛みに今も嘆き、悲しむ人たち、一方でこのことを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る人たち、色んな考えが頭の中を駆け巡りました。また尹東柱の生家を訪れる中で、尹東柱が一人のキリスト信仰者として育ったという話がすごく印象的でした。彼の日本留学への思いと虐げられる民族への思いを和解させるものが彼の心の中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感じました。私とそう変わらない年齢でこの世を去ることとなった尹東柱。「何が好きだったのかな、授業が休みの日は何をしていたのだろうか、好きな子はいたのかな、彼の夢見た世界はどうだったのかな」など、彼自身に興味が湧いてきました。セミナーを通して今年も本当に良い友人たちに出会えたことに感謝です。お互いへの関心と信頼が、「東アジアの苦難と痛みを共にする＜主体的な＞青年活動」をより豊かで、確かなものへと成長させていくと考えます。みなさん、また会える日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後の課題]

今後の日韓青年セミナーがより充実したものとなっていくことをお祈りします。大変勝手ながら、今回のセミナーの反省点等を含めて、今後以下の事項について一度検討して頂けたらと思います。

1. 日程の内容は一日ごとに何らかのテーマを設けたら良いと思う。（例として、一日目は「国境」、2日目は「尹東柱」などに絞り、それになるべく直接的に関連した場所の訪問、発題、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となるように日程を組む。また、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は各日のまとまった時間に行うなど。）

2. スタッフは事前調査を出来るだけ行うこと。また発題者及び講師との日程、内容の確認を行うこと。（発題内容の概要を前もってガイドブックに掲載するのも良いと思う。）

3.　　可能であれば、日韓両国の参加者の中から各々1、2名ずつの青年スタッフを採用すること。青年スタッフはセミナー期間中のスタッフ会議等に参加する。（さらに可能であれば、セミナーの企画段階から何らかの形で参加することが望ましい。）

4.　　スタッフには各国それぞれ少なくとも一名ずつ男性、女性スタッフを採用する。また、スタッフの中にタイムキーパーを立てる。

5.　　セミナー後の報告書はなるべく両国の青年、スタッフが共同で作成する。また可能であれば、少なくとも日韓両聖公会の管区事務所及び教務院、全教区事務所、セミナー参加者にはその印刷本を配布出来るような財政協議と資料作成手続きがなされることを望む。

6.　　スタッフは、作成された報告書及び、セミナーに参加した青年たちの意見、感想を取り入れて、次回以降のセミナーの企画、実行に活かす。

以上。あくまで、個人的な意見です。一度ご検討くだされればと思います。

우에하라 세이와 여호수아

세번째가 되는 세미나 참가였습니다. 올해도 좋은 배움과, 좋은 경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5박6일간의 타이트한 스케줄안에서, 저에게 특별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삼국의 경계와, 윤동수 시인의 생가였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국경」을 가리키는 강과 다리, (하얀)건물을 보며「어째서 자유를 넘길 수 없는 것일까」라든지「국경은 의외로 작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째 분단되어 버린 것일까 하는 의문, 역사의 아픔으로 인해 지금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이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또한 윤동주가 한사람의 기독교신앙인으로 키워졌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유학으로의 마음, 학대받는 민족에 대한 마음, 이 두가지의 마음을 화해시키는 것이 그의 마음의 가장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느꼈습니다.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윤동주. 「뭐가 좋았던걸까,수업이 없는 날에는 무엇을 했을까, 좋아하는 아이는 있었을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등의, 그에게 흥미가 계속 피어났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올해도 좋은 친구들과 만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간의 관심과 신뢰가 「동아시아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는<주체적인>청년활동」으로 인해 풍부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의 과제]

이후의 한일세미나가 좀 더 충실하게 되어 갈 것을 기도합니다. 굉장히 제 맘대로 이지만, 이번 세미나의 반성점등을 모아 이후 아래의 사항들을 한 번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 일정의 내용은 하루마다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첫째날은「국경」, 둘째날은 「윤동주」등으로 압축하여, 그것에 최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를 방문, 발제, 그룹 쉐어링이 되도록 일정을 짠다. 또한 그룹쉐어링은 각일 모인 시간에 할 것 등)

2. 스탭은 사전조사를 최대한 할 것. 또는 발제자 및 강사와의 일정,내용의 확인을 할 것. (발제내용의 개요를 미리 가이드북에 싣는것도 좋다고 생각함.)

3. 가능하다면, 한일 양국의 참가자 가운데 각각 1,2명씩의 청년 스탭을 채용할 것. 청년 스탭은 세미나 기간중의 스탭회의 등에 참가한다. (더욱이 가능하다면, 세미나의 기획단계부터 어떤형태로든 참가하는 것을 바란다.)

4. 스탭에는 각국에 적어도 남성, 여성 스탭을 채용한다. 또한 스탭중에는 타임키퍼를 세운다.

5. 세미나 뒤에 보고서는 되도록 양국의 청년, 스탭들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적어도 한일성공회의 관구사무소 및 교무원, 전교구사무소,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인쇄본을 배포할 수 있도록 재정협의와 자료작성 절차가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6. 스탭은, 작성된 보고서 및 세미나에 참가한 청년들의 의견, 감상을 수용하여, 차회 또는 이후의 세미나에 기획, 실행단계에서 적용한다.

이상.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 화서 안젤라

2015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 막내 화서의 감상문

알바를 끝마치고 감상문을 끄적이기 위해 늦은 밤 노트북을 붙잡았습니다. 연길에 다녀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4박5일 동안 같은 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이 먼 얘기 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너무도 당연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세미나에 참여하기 전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성공회 청년들의 불타는 신앙에너지(?)를 얻어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북

나눔의 집에는 제 또래가 없었기에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비슷한 또래의 한일 청년들과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성공회 청년들의 열정을 느끼면서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성공회라는 종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인 것이 많습니다. 갓 20살이 되어 술도 처음이고, 알바도 처음 해보고 또한 '세미나'라는 것도 처음인데다가 타국의 사람들과 마음 깊이 소통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첫 세미나를 통해 진정한 세미나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많아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요일 밤 열띤 토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 세미나에 대한 기분 좋은 첫 추억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4박5일 동안 저 또한 저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도 발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짜증 한번 나지 않았던 제가 신기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동시간이 길고, 물이 안 나와도 받아들이고 세미나의 막바지 즈음에는 완벽히 적응해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낯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했던 저인데, 이번 세미나에서 스스로 나서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제 자신에게 놀라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고 마음의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문희 언니의 미친(?)듯한 긍정에너지, 윤정 언니의 도라에몽 지식, 라파엘 오빠의 필력, 켄사쿠 상의 객관적인 시선, 마나미 언니의 미소, 지현 언니의 배려심 등등 소중한 언니 오빠들, 사제분들을 만나 배워가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학기 수강목록에 일본어 강의를 살포시 담았습니다. 데헷.

필력이 부족해 횡설수설한 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할말은 다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잘 해줍쇼~~!!(하트)

アンジェラ　**カン ファソ** (Kang Hwaseo)

2015　日韓青年セミナーの末っ子　ファソの感想文

バイトを終え感想文を書くためにこの遅い夜、パソコンの前に座りました。延吉から帰ってきて、だった2週間しか経ってないことに驚いています。4泊5日間、同じスケジュールで一緒に生活したのが遠い話のように感じられるほど、私たちは日常に戻ってこんなにも自然にそれぞれの人生を生きているんですね。

率直に言うと、セミナーに参加する前の私は教会もあんまり行かなかった人でした。しかし、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して聖公会青年たちの燃える信仰エネルギー(?)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した。子供の頃から通っていた協会(分かち合いの家)には、私と同世代が居なかったため、今回のセミナーを通して私と同じくらいの日韓青年たちと信仰について、そして平和について深く分かち会えたことに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また、聖公会の青年たちの情熱を感じながら自分の信仰について改めて振り返り、反省する時間となりました。そして聖公会が持っている魅力に誇りも感じました。

私は「初めて」のことが多いです。20歳になったばかりでお酒も、アルバイトも、「セミナー」っていうことも、他の国の人達と心深く疎通したことも初めてです。初めてのセミナーを通じて、本当のセミナーが何なのか学び、沢山の得ることができて感謝する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木曜日の夜の熱論が大役を果たしました。私たちは観光ではなく、セミナーのために来たって言うことを気づいた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初めてのセミナーを通して楽しい思い出が作ら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4泊5日の間、私は新しい「自分」にも出会えました。劣悪な環境でも一度も怒らずにいられたことも不思議で、自分に感心しました。不便な寝場所、長い移動時間、そして水すらよく出なかったんですが、セミナーの末頃には完全に適応していた自分を見ました。その上、人見知りが激しい私が今回のセミナーでは心を開いて話しながら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ようとした自分の姿に驚きました。今回のセミナーを通して一歩成長して、心の視野も広くなった気がします。

人は人を通して学ぶことを信じています。ムンヒ姉さんの燃える肯定エネルギー、ユンジョン姉さんのドラエモンのような万能知識、ユナ兄さんの筆力、健作さんの客観的な視線、まなみ姉さんの笑顔、ジヒョン姉さんの思いやりなど大切なお姉さん、お兄さん、司祭様の方々に会って学んだことも沢山ありました。そして、私は2学期の受講リストに日本語の授業をそっと入れました。デヘッ。

筆力不足でちんぷんかんぷんな感じになっていますが、言いたかったことはすべて残したと思います！翻訳宜しくお願いしますっ~~！（ハート）

편견, 선입견을 없애는 데는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세미나였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주제로 드넓은 중국 땅, 북한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연길에 모였습니다.

훈춘, 백두산, 윤동주 생가 등 책으로만 보았던 장소에 방문하여 '그 장소가 갖고 있는 힘'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특히 두만강을 보며 우리에겐 국경이 그저 신기하고 언젠가 없어졌으면 하는 선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슴 아픈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웃음) 그래서인지 이번 참가자들에게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愛(사랑 애)가 느껴집니다. 서로가 있기에 웃음 짓고, 서로가 있기에 더욱 특별했던 세미나였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것은 제가 지난 3년간 세미나에 참가하며 가장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런데 폐회 예배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작성하고도 고치기를 반복하고, 다음 날까지 고생하여 완성한 일본의 대도문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 속이 아릴 정도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길 진심으로 마음 속 깊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참가한지도 어느덧 3번째입니다. 그 중에는 3년을 함께 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내년에 만날 인연을 약속하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나'란 존재는 약하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분명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란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말로 다 이룰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일 청년세미나는 제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기억이자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귀한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해 준 모두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偏見、先入見をなくすには百聞は一見にしかず！って言う言葉が自然に思い浮かぶセミナーでした。

以前とは違うテーマで広い中国の地、北朝鮮とロシアとの国境を向い合う延吉に集まりました。

琿春、白頭山、尹東柱の生家など、本のなかで見ただけの地に訪れ「その場所が持っている力」を改めて気づけました。特に豆満江を見ながら私たちに「国境」っていうのはただ不思議で、いつか治まるする線に過ぎませんでしたが、誰かにとっては生きるために命を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悲痛な言葉で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を初めて思いました。

振り返って見ると、本当に沢山のことがありました。いろんな意味でですね。(笑)そのためか今回の参加者たちには以前とは違う「愛」が感じられます。お互いが居たこそ笑え、お互いがいたこそ特別だったセミナーでした。

育ってきた環境が違うと、考え方や価値観も違ってきます。この3年間セミナーに参加しながら一番激しく感じたことです。しかし、閉会礼拝では本当に思わぬ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夜遅くまで作成して、直すのを振り替え、次の日まで苦労して完成した代祷文は一字一字、胸が痛くなるほど心の奥深くに染み込みました。　共に悲しんで、お互いを慰め、またこの記憶を無くさない自分になるように心からお祈りし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セミナーに参加したのももう3回目になりました。その中には3年を一緒に参加した友達も結構います。仁川空港のゲートの前で来年また会う縁を約束しながら、ギュッとお互いを抱きしめてくれました。お別れの挨拶をしながら、本当にいろんな思いが湧いてきました。「私」って言う存在は弱いが、この仲間だちと一緒ならこれからの日韓関係も変えて行けそうな強い確信でした。言葉では表しきれないほど感謝し、愛してます。

日韓青年セミナーは私の人生で最も大切な記憶であり、これからも一緒に歩み出す貴重な仲間です。このような考えをさせて頂いた皆さんに、そして神様に感謝します。

これからもカッチカプシダ！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윤 대엽 니니안

우선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사고 없이 무사히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5박 6일 동안의 한일 청년 세미나를 마치고 일상 생활 속으로 돌아온 지 벌써 2주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너무나 즐거웠던 추억이 되어버린 그 귀중한 경험은 계속해서 제 머리와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만나게 된 모든 성직자 분들과 청년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세미나는 중국의 연변에서 5박6일 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화해와 나눔을〉 주제로 기독교인이며 시인이었던 윤동주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두 국가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 중국땅에서 한일간 아픔의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신부님들과 청년들에게서 큰 배려를 느꼈습니다.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신부님들과 청년들을 포함하여, 역사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서로가 알고있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백두산에서 천지를 보고,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변 산골짝에 있는 두레마을에서 함께 보낸 그 나날들도 잊지 못 할 것 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화해와 나눔,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ニニアン　**ユン デヨプ** (Yun Daeyeop)

まずは、セミナーに参加できるように許していただいて、なんの事故もなく元々の場へ戻れるように道を導いていただいた神様に感謝いたします。

5泊6日の間の日韓青年セミナーを終えて、日常の生活に戻ってもう2週くらい過ぎました。ですが、あまりにも楽しかった思い出になってしまったその貴重な経

験は今も私の頭と胸の中でずっと巡り続けています。　このセミナーをきかっけとして会ったすべての聖職者の方々と青年のみなさん、これからも主の中でいい関係を続けることが出来れば幸いです。

青年セミナーは中国の延邊で5泊6日の間に<歴史の現場で和解と分かち合いを>を主題としてクリスチャンであり、詩人であった 尹東柱（ユン・ドンジュ）の生涯のことを一緒に勉強しました。それぞれ違う言語を使う二つの青年が会って中国の地で日韓の痛みの歴史を一緒に勉強する家庭で日本の司祭様の方々と青年のみなさんに大きいな配慮を感じました。また、同じ言語をつかう韓国の司祭様の方々と青年のみなさんを含めて歴史と信仰の話、そしてお互い自分の中のイエス様の話をすることが出来て意味ある時間でした。

一緒に礼拝を捧げ、一緒に食事をし、一緒に白頭山で天池を見、いろんなものを一緒にすることを感謝しました。 延邊 の谷間にあるドゥレ村で一緒に過ごしたその日々も忘れません。

主の中で我々に和解と分かち合い、そして愛があるように祈ります。では、みなさん、また会いましょう。

→ 김 민주 애은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일 청년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한일 청년 세미나는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 갓 성인이 되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치여 지쳐있던 저에게 한일 청년들은 따뜻한 사람 이였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기쁜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새로운 나라인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어 새로웠고 많이 낯설었습니다. 사전모임을 통해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고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공부해 가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화해와 나눔을’ 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서 5박 6일동안 우리들은 역사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틈틈이 그룹 쉐어링을 통해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남는 말들은 윤동주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 과 항일운동에 관한 자료를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접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

까지 객관성을 두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는 것이 생각 납니다. 쉐어링을 통해 느낀 점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개인과 개인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에 여러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더 깊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쉐어링이 아니였다면 저는 혐오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즐겁고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아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중국에서의 추억들이 문득 생각이나 사진들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 추억들 하나하나가 다 크고 선명해서 빛이 바래지려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준비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愛恩（エウン）　**キム ミンジュ** (Kim Minjoo)

過ぎた8月10日から15日まで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成人になったばかりでまだなれていない新しい環境で疲れていた私にとって日韓の青年たちは暖かい人たちで明るく生きて行くことが出来る大きいな慰めでした。 それで去年に続けてうれしい気持ちでセミナー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今年は日本も韓国でもない新しい国の中国でセミナーをすることになってとても新しくて、そしてたくさんの不慣れもありました。 準備会を通じて私たちの過ぎた歴史を顧みて 尹東柱(ユン·ドンジュ)詩人の一代記を勉強しながら中国が韓国と日本の歴史で深い関係があることを学びました。

‘歴史の現場で和解と分かち合いをというスローガンをもって中国に到着して5泊6日の間私たちは歴史の現場を訪ねました。また、度々に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でいろんな友達の意見を聞きました。 記憶に残った言葉は尹東柱を始めて知った事と抗日運動に関する資料を学んで研究する過程で自ら主観的な立場で接近するべきか、どの部分まで客観性を持って接近するべきか悩みだったと聞いたのが思い出しました。シェアリングで感じたのは韓国と日本、そして個人と個人のお互いに見る視覚が異なったというものです。 お互い差があるため、もっと深く、違う

観点で考えることが出来ました。シェアリングがなかったら私は嫌悪主義に関して深く考えること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セミナーの間、楽しくて時々大変だったけど今考えるとあまりにも短すぎた感じがしてとても懐かしいです。セミナーが終わって再び日常に戻りましたが時々中国での記憶が思い付いて写真をぼんやり見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思い出の一つ一つが全部大きくて鮮やかで薄くなれるには時間が掛かりそうです。（笑）

最後にセミナーを準備して助けてくださった皆さんに感謝と愛の言葉を伝えたいです。 本当に見たくなりそうです。

노 형호 실베리오 신부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한·일청년들과 함께 중국여정에 동행을 했다. 새로운 발령지에 아직 적응도 못해 모든 것이 복잡했지만, 잠시 일정을 뒤로하고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자체가 나한텐 감사한 일이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지 못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더 잘 준비하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을 오가며 준비되었지만 올 해는 제3국인 중국으로 향했다. 나름 해방과 종전 70년이라는 뜻 깊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이 여정은 나라는 다르지만 함께 느끼고 공유하기엔 한·일·중, 이 세나라의 공간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언어가 무색할 만큼 서로 진지하게 때론 재미있게 그 모든 여정이 연결되었다. 물론 긴 버스 안의 시간만큼, 열악한 숙박시설만큼 피로도 쌓여갔지만 젊음이라는 열정이 이 모든 것을 씻어주었다. 물론 젊지 않은 몇 몇분들도 계시지만 옆의 젊은 기운을 전달 받아서..ㅎㅎ

아마 이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간 모든 청년들 마음에는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을 것 같다. 함께 바라본 그 넓고 깊은 밤하늘의 빛,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서로 화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라는.. 한국에 돌아온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에 바람이 내 마음에 머문다.

司祭　シルヴェリオ　**ノ ヒョンホ** (Roh Hyoungho)

忙しい日程を後ろに回して日韓の青年たちと中国への道に同行した。新しい勤務所でまた適応もまだなのですべてが大変だったけど、ちょっとだけ日程を後ろにしてこのように旅立つことが出来たの自体が私にとってありがたいことだ。最初から一緒に準備しなくてもっと積極的に近づかなかった部分もあるが、青年たち自らがもっとうまく準備するのでその姿を見守ることだけでもほんとに美しいと考えた。

毎度セミナーは日韓の両国を舞台にして準備したが今年は3国の中国で向かった。私なりに開放と終戦70年という深い意味を持って出発したこの旅は国は違うが、一緒に共有するには日･韓・中、この三つの国の空間がそんなに遠くとは感じられなかった。一緒に礼拝を準備して一緒に討論をしながら言語は別だが、その別の言語には関係ないほどお互い真面目で時には楽しくすべての日程が連結された。もちろん長いバースの移動時間のように劣悪な宿のせいで疲労も累積されたが若さという熱情がすべてを洗われてくれた。もちろん若くない方も何人いましたが、青年たちの若い気を受けて（笑）

多分このセミナーが終わって帰ったすべての青年たちの心には一つの星が輝いているだろう。一緒に眺めたあの広くて深い夜空の光、神様から私たちに聞かせていただくメッセージではないのか。お互い和解し、そして愛しなさいと…韓国に戻った今この時間にもそこの風が私の心に留まる。

황 윤하 라파엘

양국의 역사가 얽혀있는 중국 만주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 가기 전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며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과연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다. 역사를 바라보는 양국의 온도 차이가 분명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로 인해 어쩌면 그저 중국 여행 다녀온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그래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일본 친구들은 분명 우리

가 생각하는 일본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가 있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니까.

현장에서의 분명히 온도 차이는 있었다. 특히 우리와 일본 친구들이 생각하는 피해 개념은 분명히 달랐다. 그러나 일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역사의 큰 비극을 불러온 전쟁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욕망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그 욕망으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깊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원폭 피해자들을 포함한 군국주의 폭력에 유린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

한국인인 내가 일본인 모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여전히 조심스럽다. 일본에는 당시 전쟁을 방관한 이들도 있을 것이며, 내심 전쟁을 찬성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진 채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나 조선인 차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쟁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로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듯한 일을 벌이고 있다.

과거는 현재와 닿아있다. 현재는 또한 미래의 시작점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평화와 화해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ラファエル　**ファン ユナ** (Hwang Younha)

両国の歴史に深い関係がある中国の満州の地域で進行された今回のセミナー。行く前に、準備したプログラムを検討する時に実はちょっとだけ心配があった。 私たちが果たして歴史を持って話し合うことが出来るか？私たちはどんな資格があってこんな話をするのが許されるのか。という考えだった。 歴史に対する両国の温度の差が確かに存在すると考えたし、このせいでただ中国の旅の程度の気持ちででセミナーが終わってしまえばどうしようとような心配もした。でもセミナーに参加する日本の友達はきっと私たちが想像する日本人とは違う考えをすると確実な期待あったから希望を持つことが出来た。私たちは別の国から来たが、キリストを通じて一つになる人々だから。

現状では確かに温度の差はあった。特に韓国の友達と日本の友達が考える被害の概念は違いがあった。だけど日本の友達の話で当時に日本で生きていた人々も本当は被害者だと認識することが出来た。歴史の大きな悲劇を呼び出した戦争は結局力ある者たちの欲望によって起こったものだった。その欲望のため広島と長崎に住んでいた人々は深い苦痛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未だに原爆の被害者たちを含めて 軍国主義みら暴力に蹂躙された人々は苦痛を受けている。

韓国人である私がすべての日本人が過ちを犯したのではないと話すのはやっぱり慎重にするべきだ。日本には当時に戦争を眺める人たちも、内心戦争を賛成する人もいたと思う。そしてあの人々の大体の子孫は相変わらず同じ考えを持ったままでこの時代を生きているはずだ、　ヘイトスピーチとか朝鮮人の差別がその例といえる。さらに最近の日本政府は今までの戦争の被害で苦痛を受ける人々をまったく振り向かないまま過去の軍国主義の亡霊を蘇るような事を起こしている。

顔は現在と繋がっている。現在はまた、未来の始まりの点だ。ゆえにこの時代を生きる両国のクリスチャンは過去の経験を元にしてこの時代に平和と和解を叫ば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私たちがそれを始めるのが出来るはずだ。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OURPRAYER

"Litany for Peace"

- Korean Group

✢ 역사 속에서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계속 분열하고 다투며 서로의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歴史の中で悲しむ者たちと共におられた神よ、あなたは今も悲しむ者たちと共に泣いておられます。しかしわたしたちは弱い者たちの友となるというあなたのみ心を無視して、人間の欲によって今も分裂し、争い、互いの距離を広げています。主よ、わたしたちを憐れみください。

◉ 主よ、わたしたちを憐れみください

✢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만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서로가 이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으로, 울타리로 서로를 나누며 영역을 정하고 이익에 의해 손을 잡습니다. 서로가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의 피해를 돌아보며 보듬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私たちは自分の考えや関心のみを正しいものと決めつけて、他者を理解しようとせず、互いが隣り人となることを望んでいません。私たちは鉄柵や垣根で互いを分け、領域を決め、利益よって手を組みます。互いに負った被害がより大

きいと言い合い、他の人たちの被害を顧みず、受け入れようという努力をしません。主よ、わたしたちを憐れみください。

◉ 主よ、わたしたちを憐れみください

✢ 하느님 나라의 성부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소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현장에서 함께 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이들은 위로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순간 순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그 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소서. 우리가 인간이 나눈 나라가 아닌,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되는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곳에 모인 양국의 청년들과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인 한일성공회가 이 일들을 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피소서.

⦿ 주여, 우리를 살피소서

+ 神の国の父なる神よ、わたしたちが神の国をつくりだす者としてください。キリスト者という名で住むわたしたちがイエスに従い、悲しむ者たちと共に悲しませてください。時代の痛みを共に分かち合い、その現場でともに泣く者となさせてください。イエスは悲しむ者たちは慰められるとおっしゃいます。わたしたちが常に苦しむ者たちと共に寄り添うその場に共にいて、わたしたちを慰めてください。わたしたちが人間によって分けられた国ではなく、全ての者たちが真に一つとなる正義と平和の神の国を求め、その国をつくっていくものとしてください。ここに集まった両国の青年たちと主の聖なる公教会の日韓聖公会がこの役目を果たそうとしています。どうか、主よ、わたしたちをお助けください。

◉ 主よ、わたしたちをお助けください

✢ 의인을 부르시는 성부 하느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 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곧고 올바르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의인이 되게 하소서.

⦿ 주여, 우리를 지켜 주소서

+ 義人を呼ばれる聖なる父よ、わたしたちは弱い者です。苦痛と死の前で怯える存在です。しかし、主よ、キリスト者であるわたしたちは主が神の国のために

死なれたイエスを復活させられたように、わたしたちもまた、復活することを信じます。どうか、わたしたちに勇気をくださって、この世の法に従うのではなく、正しく、真っ直ぐと神の国に向かう義の人となさせてください。

◉ 主よ、わたしたちをお守りください

✢ 부활하신 성자 하느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고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 復活の子なる神よ、わたしたちが生活の場でキリスト者として生きる生に対する悩みを止まらせることなく、その悩みを喜びとして耐え抜く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してわたしたちが十字架を背負っていく選ばれた者の喜びに預かり、ついには復活のキリストと一つとしてください。

◉ 主よ、わたし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い

✢ 빵과 잔이 되신 성자 하느님,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빵과 잔을 통해 우리가 하나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며 하느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 パンと杯になられた子なる神よ、わたしたちが分かち合う主のパンと杯を通して、わたしたちがいつも一つであることを覚えさせてください。これを食べて、飲み、神の国を味あわせてください。

◉ 世の罪を除く神の子羊よ、わたしたちに平和をお与えください。

✢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아 주시는 성자 하느님, 천상의 잔치를 통해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못한 많은 이들과 연대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가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얼룩진 욕망의 상처를 넘어 서로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하며 이름을 기억하고 연대하게 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 わたしたちと共におられ、抱きしめてくださる子なる神よ、天上の祝宴によって、歴史の中で記憶されなかった多くの者たちと連帯させて、未来を生きる喜びを与えてください。神よ、わたしたちが時間と空間、歴史の中で欲望に染まっ

た傷を癒し、共に手を取り、見つめ合い、名を覚えて一つとしてください。主よ、わたしたちをお助けください。

◉ 世の罪を除く神の子羊よ、わたしたちに平和をお与えください。

✢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의 논리와 안락함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소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에 젖어 십자가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 주여, 우리를 항상 지켜 주소서

+ 平和をつくりだす聖霊の神よ、わたしたちが神の国を成していく上で出遭う困難の中で、わたしたちが力の論理や便宜さに支配さ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暴力を暴力で対抗する誤ちに陥らせず、また安楽さに慣れることなく、十字架の喜びから背をそむけない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

◉ 主よ、わたしたちをいつもお守りください

✢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 아멘.

+ わたし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 アーメン

Prayer of Japanese Group

過去

神よ、中国東北の地で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が開催できたことを感謝します。戦後７０年を迎えた今年、わたしたち日本側の青年は、かつての戦争を反省し、二度と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ことを決意します。ことに明日迎える８月１５日の終戦（韓国では解放）を前に広島・長崎に投下された原子爆弾をはじめ戦争による日本人の犠牲者、および韓国朝鮮人の犠牲者の痛みを覚え、和解へと向かわせてください。また、日本人として朝鮮半島の分断の歴史に触れ、無関心であったことを反省し、このことに日本の侵略が関連している罪を告白します。これからわたしたちは、より多くのことを学び、朝鮮戦争の犠牲者の痛みを覚えます。韓国の青年と協力して、朝鮮半島平和統一に向けてわたしたちともに歩ませてください。

하느님, 중국 동북의 땅에서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를 개최된 것을 감사합니다. 전후 70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일본측 청년은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여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의합니다. 특히 내일 8월 15일 종전(한국에서는 해방)을 맞이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비롯한 전쟁에 의한 일본인 및 한국인 희생자의 아픔을 잊지 않고 화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일본인으로서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에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며, 일본의 침략이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죄를 고백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많는 것을 배우고 한국전쟁의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청년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걸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現在

神よ、沖縄米軍基地問題や、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など、わたしたちの周りには、一部の人々に痛みを押し付けている現状が多くあります。

また日韓両国において、ヘイトスピーチによる差別的暴力で傷付いている人々がいます。日本においては、安全保障関連法案が可決されることにより、再び戦争へと進もうとし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が、基地建設、原発による環境破壊を顧み、あらゆるいのちの尊厳を守り、解決に向けて一歩を踏み出すための勇気をお与えください。またわたしたちが日本の社会構造のなかで小さくされた人びとの声を聞き、相手を攻撃することではなく、違いを知ることにより互いに手を取り合う術を与え、お導きください。そして、戦争の悲惨な歴史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すべての戦争に反対し、あなたの正義と平和といのちを実現する力をお与えください。

하느님,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와 동경전력 재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등 우리 주변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혐오행위에 의한 차별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이 가결되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지건설, 원전에 의한 환경파괴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일본 사회구조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전쟁에 대해 반대하며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SEMINARREVIEW

이번 세미나에서 좋았던 것
今回のセミナーで良かった点

-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국에서 했던 것.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 日本と韓国ではない第3国でセミナーをしたこと。自分の国を客観的に見る機会があってよかった。

-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함께 배우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소였다.
- 場所に関する事前知識が似たような水準だったので、一緒に学ぶ感じがある場所だった。

- 장소가 주는 거대함과 환경적 특징은 각자의 나라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 場所が与える偉大さと環境的な特徴は各自の国では絶対経験できないものだった。

- 힘든 상황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친밀감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 ハードな状況で一つになることが出来た。親密感を増やすに役に立った。

- 준비 단계부터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좋았다.
- 準備段階から多くの友達が一緒に参加したことがよかった。

- 섭외된 가이드의 전문성이 좋았다. (하지만 가이드를 섭외했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 渉外したガイドさんの専門性がよかった。(だけどガイドさんを渉外したのは短点にもなる。)

- 폐회예배에서 각 나라의 대도문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閉会礼拝で各国の代祷文を分かち合うことが出来てよかった。

- 국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 国境を見ることが出来てよかった。

-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경험. 국경지대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 普通には経験できない北朝鮮の経験。国境地帯を見たり、公演を見たり、行って来た人の話を聞くこと。

- 청년이 기획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특히 개회예배.
- 青年が企画した礼拝を捧げ上げるのがよかった。特に開会礼拝。

- 여성 스태프의 참여.
- 女性スタッフの参加。

- 스태프가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
- スタッフが青年の意見を最大限に反映しようとした。

- 일본 청년 다수와의 교류 기회가 좋았다.
- 日本の青年たちとの交流機会がよかった。

- 민감한 역사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 敏感な歴史の問題を話し合うことが出来てよかった。

- 일본어 능력자들이 많았다.
- 日本語が出来る人が多かった。

이번 세미나의 부족했던 점
今回のセミナーで足りなかった部分

- 답사를 하지 않았다.

- 事前調査をしなかった。

- 숙소문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질병 등), 이동 거리를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
- 宿問題、危機状況に対する対処、(病気など)、移動距離を考えたプログラムの計画ではなかった。

- 장소가 '청년'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상태였다.
- 場所が'青年'よって決められたのではなく前もって決められた状態だった。

- 주제가 너무 모호했다. 따라서 특별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
- 主題が曖昧だった。それで特別な目標を作るのが難しかった。

- 일본측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는가?
- 日本側と共感できる主題だったか。

- 나눔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없었다.
- 分かち合いの時間に充分に意見を話すことが出来なかった。

- 예배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느낌이다.
- 礼拝が軽く思われた感じがした。

- 타임키퍼의 부재.
- タイムキーパがなかった。

-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생략했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었다.
- 重要なプログラムを優先的に進行しなかった。省略なければならないプログラムが確かにあった。

- 각 일정마다 테마(주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 日程毎にテーマがあったらよかったと思う。

- 너무 '관광'이 된 느낌.
- 観光のイメージが強かった。

-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되지 않았다.

- 予算の執行が透明ではなかった。

- 발제 주제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가이드북에 있었으면 좋았을 듯.
- 発表主題の要約がガイドブックに書いていればよかったはず。

- 청년과 스태프를 중재할 각 나라별 '청년 스태프'가 필요하다.
- 青年スタッフを仲裁する各国の'青年スタッフ'が必要だ。

-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예산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 セミナーで使用する出版物に対する予算がもっと必要だ。

- 세미나 후반에 통역이 부실했다.
- セミナー後半に通訳が足りなかった。

- 프로그램이 조금 더 깊이있었으면 좋겠다.
- プログラムがもっと深さが必要だと思った。

- 계획이 조금 더 세부적이었다면. 예를들어, 위급 상황에서 대처 방법, 대표 전화번호 등.
- 計画がもっと詳細になれば…例えば危機状況での対処方法とか、代表電話番後など。

- 신앙/신학과 연결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 信仰/神学と繋がりがあって欲しい。

향후 건의 사항
向後建議事項

- 청년위원회를 만들자. 청년주일이 있었으면 좋겠다(일본은 8월 첫 주)
- ぜひ青年委員会を作ろう。青年の週日があればいいと思う。（日本は八月1週)

- 한일 공동 청년 위원회의 출범
- 日韓青年共同委員会の出帆

2015
청년세미나
青年セミナー

PHOTOALBUM

0810ARRIVAL

Yanji Airport • Cafe Mark • Relief to North Korea

0810ARRIVAL

Opening Eucharist • ICE 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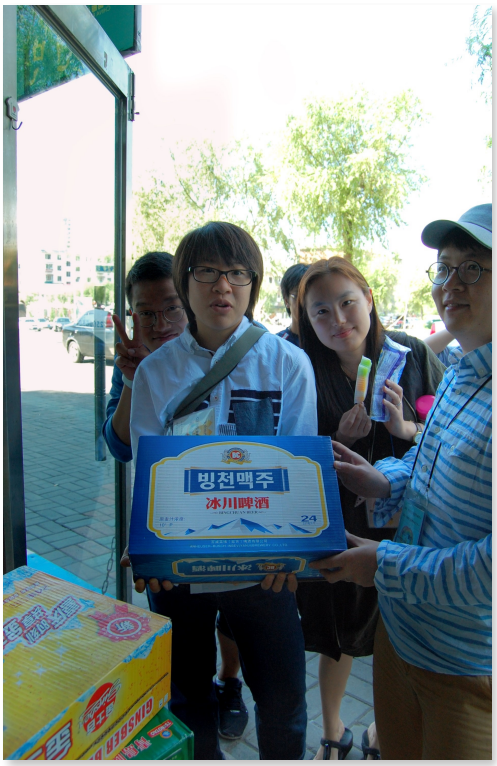
0810ARRIVAL

People

0811HUN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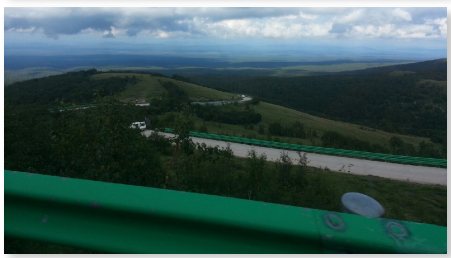
Borderline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痛みの歴史
아픔의 역사


빙천맥주
冰川啤酒

0812MtBAEK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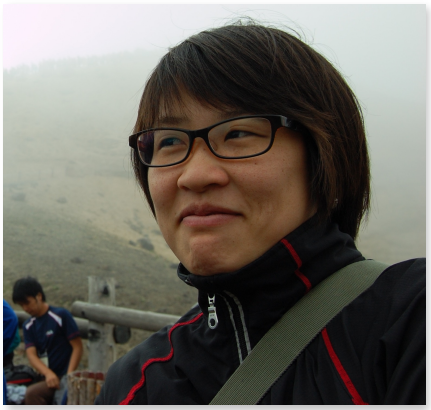
The way to the top of the Mt. Baekdu



0812MtBAEKDU

"Heaven Lake", the top of the Mt. Baekdu

←主峰观光路线



0813YONGJUNG

ユンドンジ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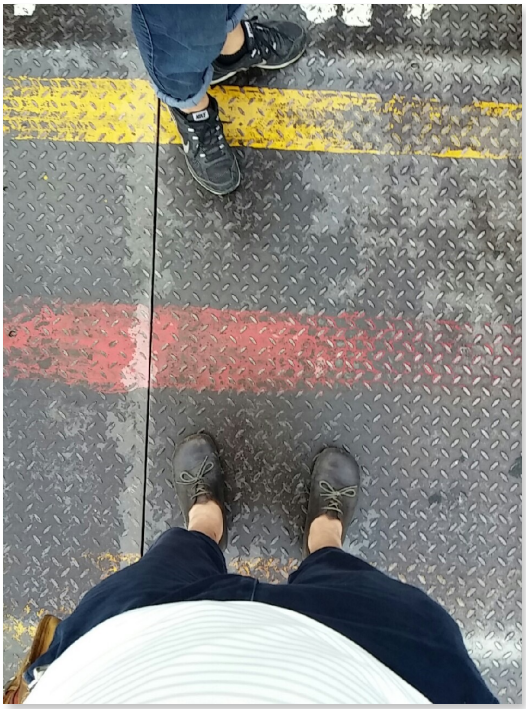
The house of 윤동주 尹東柱's birth & His School

0813YONGJUNG

イルソンゾン
一松亭・Borderline of North Korea-China

0813YONGJUNG

Borderline of North Korea-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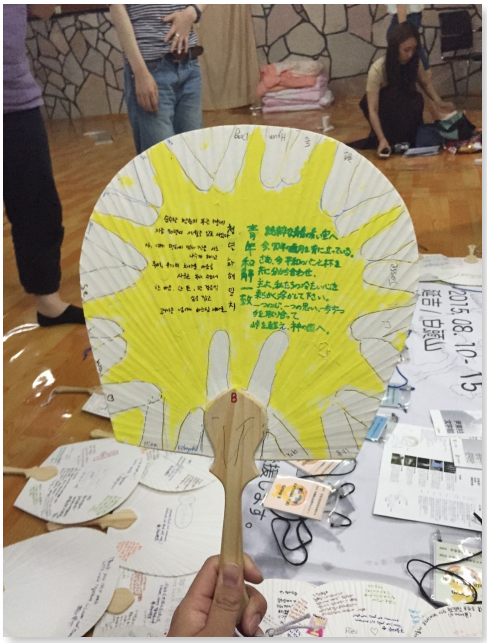
2015. 08. 10 - 15
延吉 / 白頭山

0814YANJI&FARWEWELL

Yanji City • Lecture II

0814YANJI&FARWEWELL

Lecture II • Closing Eucharist • Farewell Party



0814YANJI&FARWEWELL

People

0814YANJI&FARWEWELL

People

PARADISE
CASINO

All texts are translated by 지현(ムンジ), 대엽(デヨプ), 成和(せいわ)

This book is edited by 윤하(ユナ)

Special thanks to All beloved members

Copyright 2015 대한성공회 교무원(大韓聖公会 教務院) All rights reserved.